

루터의 종교개혁과 16세기 독일의 가톨릭 교회법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루터의 가톨릭 교회법 비판 및 루터주의 개혁법령 제정을 중심으로 －

김정우 (숭실대 법대 박사과정) (대학원 2-2)

논문초록

본 논문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로마 가톨릭 구조를 오랫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지탱해오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법과의 관계를 연구하되, 종교개혁 과정에 나타난 루터의 교회법 비판 내용들과 이러한 비판들의 결과로 독일 사회에 잠정적으로 초래된 위기와 이에 대한 대처로서 교회법의 선별적 수용 그리고 루터주의 신학을 법제화한 루터주의 개혁법령의 제정과 주요 내용 그리고 정착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러한 루터의 교회법 비판 및 루터주의 개혁법령의 제정이 갖는 근대적인 법적 함의는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실정법 구조에 대한 저항과 법 앞에서의 평등의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 종교개혁, 가톨릭 교회법 비판, 교회법의 선별적 수용, 루터주의 개혁법령, 근대적인 법적 함의.

I. 서론

지금까지 루터의 종교개혁과 법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루터의 세속법에 대한 이해¹⁾ 혹은 자연법 이해²⁾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세의 로마 가톨릭과의 대결 내지는 탈피 구조로 이해할 때 로마 가톨릭의 구조를 오랫동안 법적, 제도적으로 지탱해오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다.³⁾ 이에 관해서 외국의 신학자 및 법학자의 평가에 나타난 몇 가지 단서들을 살펴보면, 독일의 교회사학자 아돌프 하르낙(Adolf von Harnack, 1851-1930)은 종교개혁의 혁명적인 본질은 신적인 교회법이 절하되었다는 사실로 평가했다고⁴⁾ 독일의 기독교 역사철학자인 에른스트 트뢰치(Ernst Troeltsch, 1865-1923)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교회법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들이 도입되었다고 평가했으며,⁵⁾ 미국의 법사학자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 1918-2007)은 루터의 종교개혁은 법을 신학적 교리(doctrine)와 교회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고 표현했고 이는 종교개혁이 교회의 법적 실체를 부인함(delegalize)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⁶⁾ 이러한 평가들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과 16세기 가톨릭 교회법의 관계를 검토하되, 우선 종교개혁의 배경을 당시의 가톨릭 교회법의 구조적인 문제점의 측면에서 개관하고(Ⅱ), 이어서 루터가 가톨릭 교회법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들이 무엇이었는지 1517년에 발표한 「95개조 논제」와 1518년에 발표한 「95개조 논제 해설」 그리고 1520년에 발표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에 나타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 후(Ⅲ, Ⅳ),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의 가톨릭 교회법의 무용성 내지는 폐지에 대한 주장으로 초래된 사회적 위기와 이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타협으로 가톨릭 교회법에 대한 당대의 인식이 다시금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검토한 후(Ⅴ), 종교개혁 신학을 받아들인 독일 영방지역에서의 법적 변화 즉, 종교개혁 신학을 법제화한 루터주의 개혁법령들의 제정 및 주요 내용 그리고 정착화 과정들에 대해 살펴 보고(Ⅵ), 끝으로 루터의 가톨

1) 국내에서 법학 분야의 최근의 연구는, “김대인,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4권 제2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9 ; 신치재, “법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적 접근 - 루터의 두 왕국이론에 기초하여 -”, 「중앙법학」 제12권 제2호, 중앙법학회, 2010.

2) Paul Althaus, *The Ethics of Martin Luther*, 「말틴 루터의 윤리」, 이회숙 역, 컨콜디아사, 1989, 55-67;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2」, translated by Olive Wyon, Harper & Row Publisher, 1960, 528-539면.

3) 외국의 대표적 연구 성과는 Helmholz, Richard H. *Canon Law in Protestant Lands*, Duncker & Humblot, 1992; John Witte, *Law and Protestantism : The Legal Teaching of the Lutheran Reformation*, Cambridge Press, 2002.

4) Adolf von Harnack, *Das Wesen Des Christentums*, 「기독교의 본질」, 한들출판사, 2007, 222면.

5) Ernst Troeltsch, *Die Bedeutung des Protestantismus für die Entstehung der modernen Welt*, 「Protestantism and Progress」, translated by W. Montgomery, Beacon Press, 1958, 102면. 이 책에서 트뢰치가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시각에 대한 분석은 김주한, “루터 종교개혁의 문화적인 의미”, 「종교와 문화」,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2.

6) Harold Berman,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Abingdon Press, 1974, 63면.

릭 교회법 비판과 루터주의 법령의 제정이 갖는 근대적인 법적 함의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맺고자 한다.

II. 역사적 배경

종교개혁 직전의 역사적 배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이 가능하나⁷⁾ 여기서는 교회법상의 교황우위권에 기한 독일에 대한 경제적 착취구조와 불합리한 사법구조 그리고 당시의 교회법의 위상, 세속법과 교회법의 점증하는 마찰, 루터 자신의 로마소송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황 우위권과 로마 교황청의 부패한 사법제도

교황은 영적 우위권의 일환으로 성직자들은 그들이 거주해 있는 지역의 제후에게 충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성직자들은 세속적 법률이나 세금 징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들은 교황이 부과한 특별법에만 예속되며, 오로지 그 교황에게만 세금을 바칠 뿐이었다. 그러므로 영적 우위권이란 유럽에 산재해 있는 모든 나라의 세속적인 주권을 간섭할 수 있는 끝없는 권리까지 포함했다.⁸⁾ 이 권한으로 교회법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세속법을 어떻게 간섭했는지, 그리고 교황청의 자금징수 부담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세기 동안에 교황권은 보류권(Reservation)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교권의 임명을 완전히 장악해 보려고 노력했고, 종교개혁 1세기 이전부터 교황은 각종 구실을 들먹이면서 어느 특정한 성직록 수혜자에게 빈 자리를 주는 것이 교회의 권한임을 선포했다. 교황 요한 22세(1316-1334)는 교황의 비호 아래, 어떠한 특권이 유보되어있는가를 밝히는 일련의 규율을 제정하였는데 교황청의 법률제정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요한 헌장(Constitutiones Johanninae)은 교회의 모든 특권을 교황에게만 묶어두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교황은 항상 자신이 만드는 법보다 더 우위에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주장하였다. 교황은 법위에 혹은 절대법이었으므로 교황의 특별 면제(dispensations)가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이 만든 법보다 우위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보류권제도는 교황 요한 22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었다.⁹⁾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교황청의 성직록 보유권은 교회법과 유럽 국가의 법률 사이에서

7) 종교개혁 전야의 포괄적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Steven Ozment, *The Age of Reform, 1250-1550: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개혁의 시대: 중세말의 지성 종교사와 유럽의 종교개혁」, 손두환, 강정진 역, 칼빈서적, 1988, 1-65면.

8) Thomas M. Lindsay,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ume 1*, 「종교개혁사 I」, 이형가·차종순 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90, 21면.

9) 위의 책, 23면.

끊임없는 마찰을 빚곤하였다. 세속 통치자들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사전보호법(praemunire)과 비슷한 여타의 법으로써 보호하거나 아니면 교황과 협약(concordats)을 맺기도 했으나 교황권의 우세한 외교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협약은 항상 교황청의 변호사들이 대신해서 체결했으며 교황의 뜻이 그것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부수적인 조항을 첨가하였다.¹⁰⁾

교황청의 대법원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사무와 등기 등의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필요한 요금으로 간주되었는데, 교황 22세와 더불어 그의 후계자들은 십일조, 성직취임 후 첫수입(annate), 조달비 등을 제정했고, 팔리움(pallium: 대주교의 어깨에 걸치는 띠) 수여에 따른 요금, 공석금, 기부금, 그리고 특별 면제금 등을 정규수입원으로 삼았다.¹¹⁾

십일조는 교황권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모든 교회수입의 1/10을 바치는 제도로서 이는 십자군 전쟁 같은 특별 목적을 위해서 때때로 거두어 드렸는데 그러한 필수적 사건이 거의 끊이지 않고 계속됨으로써 강제착취에 대한 분개가 열화와 같았다.¹²⁾

성직취임 후의 첫 수입세는 12세기의 시작으로부터, 성직록에 재직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임해 오는 사람은 첫해의 수입을 지방을 위한 용도로, 즉 교회당 수리를 위해서나 작고한 전임자의 후예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사용하였는데, 13세기의 시작으로부터 고위성직자와 제후들은 교황으로부터 성직록을 수입하기 위해 부임하는 신임자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첫 수입세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는데 교황 요한 22세는 첫 수입세를 교황권의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였고, 공석중인 성직록의 수입은 그 공석기간 중에는 교황청의 재무국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교황은 교회가 있는 지방으로부터 특별한 기부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으며, 그 지방의 백성들에게 소위 말하는 자발 성금을 내도록 강한 압력을 가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규적인 수입 재원으로부터 대량의 금액이 교황청의 재무국에 쏟아진 것을 제외하고도 부정기적인 근원으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왔다. 교회법과 도덕법을 위반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해야될 수 없이 많이 특별 면제가 부여되었다. 즉 금지된 촌수내의 결혼허가를 해주고 돈을 받는 면제, 2개 이상의 성직록 보유 허가, 무역이나 혹은 여타의 부당한 이익확보 허가 등이었다.¹⁴⁾

한편 로마 교황청은 전 서방교회에서 가장 높은 항소법원이었다. 이것은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법률사업에 관련된 막대한 금액의 돈거래를 의미했으며, 필연적인 법률적 경비지출을 뜻했다. 그러나 교황청은 주교나 대주교 법원에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재판까지도 기필코 교황청까지 끌고 오곤 하였다. 이러한 재판과정은 이중적인 정책, 즉 교권적이고 재정적인 추구에서 수행되었다. 재판 업무가 대부분 로마에서 진행됨에

10) 위의 책, 24면.

11) 위의 책, 25면.

12) 위의 책, 26면.

13) 위의 책, 26면.

14) 위의 책, 27면.

따라 막대한 돈이 로마로 흘러 들어오게 하였고, 또한 교황은 가난한 소송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가 부과되었다.¹⁵⁾

이렇게 해서 유럽 전역으로부터 거대한 양의 업무가 교황청 대법원으로 몰려들어오자, 일단의 사무직원들을 필요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월급은 유럽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보류된 성직록에서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인들이 내는 소송비용이나 뇌물로써 충당하였다. 교황청의 법정은 악명 높은 느림보, 강탈자, 금전만능 세상이었다. 모든 서류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손을 거쳐야했으며, 각 단계마다 이에 상응하는 요금을 지불했으며, 소송비용도 대법원의 규약이 정하는 액수에 따르더라도 이미 무거운데, 공식적인 조건표 이외의 비정규적인 수수료가 수 없이 가산되어서 산처럼 높았다. 로마교회는 특권, 특별면제, 성직록 구매 등의 업무가 수행되는 곳이며, 고소인이 이 사무실, 저 사무실로 간청하고 다녀야 하는 비정한 곳이 되어 버렸다.¹⁶⁾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반세기 동안 모든 일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었다. 15세기 마지막 10여년과 16세기의 첫 1/4분기 동안에 개혁되지 못한 교황권은 그 당시의 모든 작가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나 교황청은 로마 주교의 영적인 우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들은 꼭 필요하다고 되뇌이곤 했다.¹⁷⁾

2. 정치적 법적 실체로서의 교회법의 위상

루터의 종교개혁 전야의 가톨릭 교회는 독일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법적, 정치적 실체였다. 교회는 독일에서 광범위한 영적인 재판관할권을 주장했다. 여기에는 교회재산, 성직록, 결혼, 도덕적 범죄 등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회는 한편, 보다 세속적 권력에 속하거나 혹은 그것과 동시 재판관할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요구하였다. 교회법원은 교회법상의 실체법적, 절차법적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판결하였고 사건들은 교회법원의 심급에 따라서 상소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교황의 법원(papal rota)까지 갔다.¹⁸⁾

1200년과 1500년 사이의 서양 세계에서, 교회는 단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 모이는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었고, 교회법도 신앙인들을 지도하기 위한 단지 영적훈련의 내적 법전이 아니었다. 교회는 모든 기독교 나라들을 통치하는 서양의 하나밖에 없는 보편적 주권자였던 것이다. 교회법은 유럽 전역을 통해 재판관할권과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서양의 유일한 보편적 법이었고, 이 기간에 가톨릭 교회는 교회법을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행사했다. 이 당시 교회는 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힘, 문자 그대로 “법을 말하는”(jus dicere)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였다. 교회는 성직자, 순례자, 학생, 이단자, 유대인,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교리, 예배의식,

15) 위의 책, 28-29면.

16) 위의 책, 29면.

17) 위의 책, 31면.

18) Witte, *Law and Protestantism*, 35-37면.

교회재산, 교육, 자선, 상속, 구두 약속, 선서, 도덕적 범죄와 결혼 등에 걸친 문제들에도 관할권을 행사하였다.¹⁹⁾

이러한 관할권적 요구들은 교회를 기독교 제국의 입법자 겸 재판관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기독교 제국 전체에 걸쳐 통용될 수 있는 일련의 교황의 교령, 교서, 공의회 법령과 칙령들을 반포하였다. 이러한 법률적 자료들은 개별적으로 유포되거나 나중에 교회법대전을 이루는 여섯 개의 책으로 주석되기도 했다.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과 주교회 의에 의해 선포된 엄청난 양의 보조적인 입법들이 또한 반포되었는데 이것은 종종 재판관들과 법률가들의 주해와 의견으로 주석되곤 했다.²⁰⁾

대부분의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먼저 종교 법원(consistory court)으로 일컬어지는 부주교 법원에서 부주교나 임시 재판관에 의해 주재되어 다루어졌다. 논쟁이 되는 결혼의 무효나 성직자에 의해 행해진, 혹은 이들을 향해 행해진 성범죄들과 관련되는 대부분의 분쟁들은 대개 주교의 감독법원에서 취급했으며, 주교 자신이나 그의 주요 관리에 의해 주재되었다. 이러한 법정들은 절차, 증거, 공평이라는 세련된 규정들로서 진행하였으며, 그들의 판단을 집행할 수 있고 그들의 세속적 적수들을 누를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영적인 무기들을 가까이 가지고 있었다.²¹⁾

3. 교회법과 세속법의 점증적인 마찰

독일의 세속 권력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영적인 재판관할권과 교황과 성직자의 영적인 특권들을 존중하고 보호했다. 중세의 많은 제국법령들과 정교협약들은 교회가 영적인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는 범위를 확인해주었다. 이러한 도구들이 성직자들의 세금 및 기소 면제의 특권들을 보장해 주었다. 그러나 많은 제국법령들과 정교협약도 교회 재판관할권의 경계상에 있는 문제들(예를 들면 성직자의 범행)을 세속적 권력이 통제하려고 하는 태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1520년 프라이부르크의 광범위한 법령은 교회가 적절하게 처벌하지 못한 비도덕적인 많은 행위들을 금지했다.²²⁾ 한편 독일 세속 권력은 교회의 광범위한 재판관할권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는데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황제와 몇몇 강력한 제후들과 시 참사회는 교회의 세속적 권력과 특권, 재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16세기로 접어들면서 교회재산과 재판관할권에 대한 세속 권력의 통제는 종교 개혁이 다가올 폭풍 전조였다.²³⁾

19) John, Witte, *From Sacrament to Contract -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30-31면.

20) 위의 책, 31면.

21) 위의 책, 31면.

22) Witte, *Law and Protestantism*, 47면.

23) 위의 책, 49면.

4. 루터 자신의 로마소송 경험

교회법에 대한 루터의 분노는 95개조 논제 사건으로 그 자신이 로마의 법정에 소환되고 교회법에 근거한 로마에서의 소송을 경험하면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로마교황청에서는 1518년 5월 혹은 6월에 법률적인 사전심사로부터 루터에 대한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교황청 주교인 히에로니무스 지누치가 교황 측 판사로서 사전심사를 담당했다.²⁴⁾ 루터 문제에 대한 로마의 사전 심사는 그의 로마 소환으로 이어졌는데 이 단성과 교회 직권에 대한 반항이 그 이유였다. 루터에 대한 로마소송에서 교회가 사용한 방법과 방식은 교황의 교리결정권에 대한 교회법적 규정에 기인한 것이다.²⁵⁾ 논제의 글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통해 루터는 당시 교권에 대한 교황청 전체의 이해가 얼마나 교회법적 전통에 얽매어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교회법, 특히 교황의 교령은 루터에게 왜곡된 교회 권한 이해의 한 표현이었고, 루터는 취소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로마의 사법부 역시 배격하고자 했다.²⁶⁾ 1520년 여름 로마의 소송이 종결되자, 루터는 교황이 만든 모든 교회법을 공개적으로 정죄하고 주요 서적들을 불태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루터는 12월 10일 비텐베르크 시 동편에 있는 엘스터 문에서 교황서적들을 불태웠다. 루터는 이 후에 이 사건을 설명한 책 「무엇 때문에 교황과 그의 측근들의 책이 마틴 루터 박사에 의해 소각되었는가」라는 책에서 교황이 만든 교회법의 거부를 전면으로 다루었다.²⁷⁾

III. 「95개조 논제」 및 「95개조 논제 해설」에 나타난 교회법 비판

우선 종교개혁을 촉발시켰던 루터의 「95개조 논제」 상에 나타난 교회법 관련 비판 논제를 적시하여 보고, 이 논제들을 하나하나 논증한 「95개조 논제 해설」의 내용을 살펴본다. 그런데 「95개조 논제」에 나타난 교회법 관련 비판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상의 면죄부 이론과 참회제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데 이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1. 교회법상의 면죄부 이론과 참회제도의 형성에 관한 역사적 배경

로마 법률용어로서의 면죄부(indulgentia)는 사면이나, 형벌의 면제를 의미했다. 라틴 교회에서 쓰이는 의미로는 참회와 교회 또는 자선기관에의 기부에 근거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아닌 현세적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가리켰다. 면죄부 관습은 형벌을 대

24) Reinhard Schwarz, *Luther, Martin*, 마틴 루터, 정병식 역, 한국신학연구소, 2007, 121면.

25) 위의 책, 206면.

26) 위의 책, 207면.

27) 위의 책, 208-209면.

신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북부와 서부 야만족의 관습에서 유래했다. 교회는 이 관습을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택했지만, 종교적 범죄들에 적용하는 잘못을 범했다.²⁸⁾

면죄부로 번역된 라틴어의 "인둘겐치아"(indulgentia)는 원래 "관용, 부드러움, 자비,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후에 "사죄", "사면"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indulgentia"라는 원래의 의미가 죄를 면해 준다는 면죄부(免罪符)보다는 죄에서 용서를 받고 형벌을 면제받는 사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²⁹⁾ 처음에는 순수하게 영적으로 고해성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사제의 도움으로 이해된 면죄부가 점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규적인 의무를 진 정당하면서 권위 있는 법률적인 방책으로 이해되었다.³⁰⁾

파울루스(Nikolaus Paulus)와 포쉬만(Bernhard Poschmann)의 자세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면죄부는 11세기에 시작되었다. 면죄부는 죄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기한적인 벌에 대해 교회로부터 인가받은 확고하면서 동시에 법적으로 유효한 약속과 숫자로 정확하게 기술된 규정으로 되어있었다. 예를 들면 100일간의 면죄부로 100일간에 해당되는 기한적인 벌을 없앨 수 있다.³¹⁾

면죄부(Indulgentia)가 교회법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은 13세기부터이다. 1215년 제4차 라테란(Lateran) 공의회는 고해(Beichte)를 성례로 결정하였다. 이 공의회는 교회법 제21조는 교인은 정기적으로 1년에 1번은 정해진 신부에게 모든 죄를 참회할 것을 결정했다. 이로써 개인을 교회제도에 완전히 묶어버렸다. 제62조에서는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교황 제외)은 정기적인 면죄부를 신자들에게 40일 이상 줄 수 없음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결국 큰 면죄부는 교황만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³²⁾

토마스 폰 아퀴나스(Thomas von Aquin, 1225-1274)에게서 면죄부 이론이 발전되었는데 그는 교황의 죄 용서의 권세는 그리스도 사도들의 죄 용서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며 면죄부의 실행은 우주적인 교회의 무오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파리대학교 교수인 도미니크 수도회의 초기 스콜라 신학자 후고 폰 샹트 케어(Hugo von St. Cher, 1097-1141)가 전개한 '교회의 보화'(thesaurus ecclesiae) 이론을 받아들였는데 13세기에 면죄부의 이론에 결정적인 강화를 가져왔다. 이 이론은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 교회 전권의 시대라는 인식을 하기에 충분했다. 후고는 그리스도의 공로는 성인들의 잉여 선행과 더불어 보화의 형태로 교회에 위임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교회는 이 보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³³⁾

28)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7: The German Reformation 박종숙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348면.

29) 김문기, "사면부의 역사와 루터의 95개조 논제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제2집,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2000, 24면. 저자는 면죄부라는 용어보다는 사면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바, 여기에서는 사면부의 개념을 염두해 두되 논의의 편의상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면죄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한다.

30) 위의 논문, 27면.

31) 위의 논문, 27면.

32) 위의 논문, 28면.

33) 위의 논문, 28-29면.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들은 수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공로들이 현세적이고 법적인 집행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 보화는 특히 교황의 권한 안에 있는 도구가 되었다. 토마스는 사면의 시여에 대한 전권은 오직 교황에게 있다고 했다. 이로부터 토마스는 연옥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까지 면죄부의 사용이 가능함을 인정했다. 면죄부가 과거에 개 교회에서 개인의 회개와 목회에서 자리를 차지하였다면 이제 사면은 모든 교회와 이 교회의 머리인 교황의 과업이 되었다. 교황은 '교회의 보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황은 '공로의 보화'가 있다면 "면죄부를 집행할 수 있는 권세"(potestas faciendi indulgnetias)를 가진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교회의 보화'가 면죄부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것이 교황의 칙서에 나오게 되기까지 약 100년이 걸렸다. 이것이 교황 클레멘스 6세(Clemens VI., 1342-1352)가 1343년 공포한 칙서인 'Unigenitus'이다.³⁴⁾

면죄부에 대한 새로운 변혁은 교황 식스투스 4세(Sixtus IV., 1471-1484)에 의해 일어났다. 1476년 8월 4일 식스투스 4세는 남 프랑스에 있는 성인들의 주교좌 성당 개축을 위해 "살바토르 노스터(Salvator noster)"라는 칙서를 공포했다. 이 칙서에서 식스투스는 면죄부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까지 효력이 있음을 공포하였다.³⁵⁾

2. 「95개조 논제」 상에 나타난 참회에 관한 교회법 비판 논제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최초에 라틴어로 쓰여졌으나, 곧 독일어로 번역되었다. 여기서 는 라틴어에서 번역한 본문³⁶⁾과 독일어에서 번역한 본문³⁷⁾을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³⁸⁾

(1) 우리들의 주요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참회/회개를 행하라” 등등...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이 참회이기를 원하셨다.³⁹⁾

우리의 스승이시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신자의 전 생애가 지속적이며 중단 없는 회개여야 한다는 것을 바라신 것이다.⁴⁰⁾

34) 위의 논문, 29면.

35) 위의 논문, 27면.

36) 조병하, 마르틴 루터와 개혁 사상의 발전, 한울출판사, 2000, 22-47면.

37) Schreckenbach, Paul, Neubert, Franz, *Martin Luther : Ein Bild seines Lebens und Wirkens : mit 384 Abbildungen, Vorwiegend nach Alten Quellen* 「마르틴 루터」, 남정우 옮김,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3, 321-328면.

38) 상단의 번역이 라틴어 번역이고 하단의 번역이 독일어 번역인데 독일어 번역을 제시하는 이유는 좀 더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39) Dominus et magister noster Iesus Christus dicendo 'Penitentiam agite &c.' omnem vitam fidelium penitentiam esse voluit.

40) 제 1논제가 제시되는 것은 바로 뒤이어 나오는 교회법상의 참회와 구별되는 것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2) 이 말씀은 성례의 참회⁴¹⁾(즉 사제들의 봉사/직위를 통하여 수행되는 고해/고백과 배상/만족/속죄의 성례적 참회)에 의하여 이해되어 질 수 없다.⁴²⁾

그리고 이 말씀은 참회의 성례전, 즉 사제의 직무로 수행되는 고해의 속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5) 교황은 그가 그 자신의 판단을 통하여서이든지 혹은 교회법에 맞는 법령의 판단을 통하여서이든지 부과하였던 것들/형벌들 이외에 그 어떤 하나의 형벌들을 사면하기를 원할 수도 그리고 사면할 수도 없다.⁴³⁾

교황은 자신의 직권 또는 교회법에 따라 부과한 형벌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책벌하려고 해서도 안 되며, 책벌할 권리도 없다.

(8) 교회의 참회제도/참회와 관련된 교회의 법령들은 단지 살아있는 자에게 부과되어졌고, 그것 자체들에 따라 죽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⁴⁴⁾

고해와 참회의 방법을 규정하는 교회법은 오직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며, 임종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 법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0) 죽는(/임종하는) 자들에게 교회법에 맞는 참회들을 연옥을 위하여 유지/보존하는 이들인 그 같은 사제들은 무지하고 악하게 행한다.⁴⁵⁾

임종에 처한 자에게 연옥 문제를 내세워서 속죄를 보류하는 사제들의 행위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11) ‘교회법에 맞는 형벌 바꾸기/변형하기로부터 연옥의 형벌’으로 이러한 잡초들이 확실히 감독들이 잠자는 동안 뿌려진 것으로 보인다.⁴⁶⁾

교회의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회개와 속죄를 연옥의 회개와 형벌로 바꾸어 놓은 가라

41) 참회의 성례는 교회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CODEX JURIS CANONICI*, 「교회법전」, 2008, ;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출판사, 2007, 374-382면.

42) Quod verbum de penitentia sacramentali (id est confessionis et satisfactionis, que sacerdotum ministerio celebratur) non potest intelligi.

43) Papa non vult nec potest ullas penas remittere preter eas, quas arbitrio vel suo vel canonum imposuit.

44) Canones penitentiales solum viventibus sunt impositi nihilque morituris secundum eosdem debet imponi.

45) Indocte et male faciunt sacerdotes ii, qui morituris penitentias canonicas in purgatorium reservant.

46) Zizania illa de mutanda pena Canonica in penam purgatorii videntur certe dormientibus episcopis seminata.

지는 감독들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뿌려진 것 이다.

(12) 이전에 마치 언약/시험들이 참다운 통회/참회와 관련하여 있듯이 교회법에 따른 형벌들은 사죄의 선언 후가 아니라 오히려 전에 부과 되었다.⁴⁷⁾

종전에 종교상의 참회, 즉 이미 범한 죄에 대한 회개와 속죄는 회개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면 이후가 아니라 사면 이전에 부과되었다.

(13) 죽는/임종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이미 교회법들의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것들의 권리로부터 안심/안도한다(/해방된다).⁴⁸⁾

임종에 처한 자는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며, 교회법령의 여러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것이 되며, 그 법령의 형벌에서 정당하게 벗어나게 된다.

(22) 오히려 그는 이생의 삶에서 교회법에 따라 그것을 해방해야만 하는 그 어떤 형벌들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면하지 못한다.⁴⁹⁾

교황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형벌도 경감시켜 줄 수 없다. 이 형벌은 교회법에 따라 현세에서 사해지고 갚아져야 하는 것이다.

(85) 동일하게, 왜 참회의 교회법이 본래 그리고 사용하지 않음을 통하여 이미 오랫동안 스스로 폐지되어졌고 사문화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그들이) 돈을 가지고 대사/사면들의 허용들을 통하여 마치 (그것들이) 지속하는 것처럼 구속되어 지는가?⁵⁰⁾

이와 마찬가지로, 참회에 관한 교회의 법규는 사실상 오래되어 사용되지 않아서 폐지되고 사문화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법규가 전적으로 유효하며 살아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면죄부를 통하여 돈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가?

47) Olim pene canonice non post, sed ante absolutionem imponebantur, tanquam tentamenta vere contritionis.

48) Morituri per mortem omnia solvunt et legibus canonum mortui iam sunt, habentes iure earum relaxationem.

49) Quin nullam remittit animabus in purgatorio, quam in hac vita debuissent secundum Canones solvere.

50) Item. Cur Canones penitentiales re ipsa et non usu iam diu in semet abrogati et mortui adhuc tamen pecuniis redimuntur per concessionem indulgentiarum tanquam vivacissimi?

3. 「95개조 논제 해설」에 나타난 교회법 비판

(1) 「95개조 논제 해설」의 작성 배경 및 중요성

사죄와 면죄증의 유효성에 관한 글(“95개조 논제”)이 발표된 이래 그를 반대하는 측의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오해를 하며 비난하는 것을 알게 된 루터는 1517년 말에 그 “논제”에 대한 해설문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해(1518년) 그는 사면들의 가치/장점에 대한 논쟁들에 관한 결정들(Resolutiones disputationum de indulgentiarum virtute)이란 글⁵¹⁾을 수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마침내 발표하였다. 조목마다 하나하나 들어서 그 근본 동기와 진의를 해명하면서 루터 자신의 중심 사상을 신학적인 견지에서 논술하였고, 전체로 보아 통일성 있는 내용을 전개시켰다. 이것은 루터의 초기 저작 중 매우 귀중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고 “95개조 논제”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띤 중요한 종교개혁적, 신학적 논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을 통해 루터 자신이 교회법과 교부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저술들에 능통하고 있었음도 관찰할 수 있다.⁵²⁾

(2) 교회법에 관련된 논제를 설명하는 주요 논증들

루터는 논문 선언문에서 그의 논증이 성서에 있으며 성서로부터 주장될 수 있는 바, 그리고 교부의 저술들에 있으며 그것들에서 유래되며 로마교회에 의해 승인되고 교회법 및 교황의 법령에 보존되어 있는바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말하거나 주장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⁵³⁾ 또한 자신의 판단을 따라, 본문과 증거 없이 주장되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혹은 기타의 스콜라학자들이나 교회법학자들의 단순한 의견들을 자의로 논박하거나 수락하기를 원한다고 표명하고 있다.⁵⁴⁾

성례전적 참회에 관해서는 아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으나, 그것은 교황들과 교회에 의해 법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따라서 교회의 재량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적 참회는 신적인 법으로서 결코 변경될 수 없다.⁵⁵⁾ 교황이 신법을 바꾸고 신적 정의가 부과하는 바를 완화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일이며⁵⁶⁾ 교황은 교회법이나 형벌의 경우 외의 어떤 징벌도 매거나 풀 수 있는 어떠한 권세도 가지고 있지 않다.⁵⁷⁾

속죄행위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때문에 성례전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규들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속죄를 행하기 때문에 성례전적인 것이다.⁵⁸⁾

51) “95개조 논제 해설”, 루터選集 제5권, 지원용 감수·편집, 컨콜디아사, 1984. 79-209면.

52) 위의 책, 79면.

53) 위의 책, 83면.

54) 위의 책, 83면.

55) 위의 책, 85면.

56) 위의 책, 92면.

57) 위의 책, 94면.

최근의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그들의 회개와 속죄행위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는 식으로 참회의 성례전을 취급하고 가르침으로써 양심의 고통에 너무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⁵⁹⁾ 역시 교회법 학자들도 그러한 양심의 고통을 장려해 왔다.⁶⁰⁾

교회법은 모든 다른 인간이 만든 법들처럼 시간, 장소 및 사람 등의 환경에 제약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환경들이 변화될 때 법들도 그치는 것이다.⁶¹⁾

정의에 입각해 볼 때, 그 법의 배후에 있는 상황들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될 때나 그 법이 불의로 향하는 경향이 있을 때 살아 있는 자는 교회법들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그 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생긴다.⁶²⁾ 만일 산 자가 법들로부터 해방된다면 죽은 자가 해방되는 것은 더 합당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법의 배후에 있는 상황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도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그 법들이 원래 제정된 것도 그와 그의 삶의 상황을 위한 것이다.⁶³⁾ 법 자체의 단어들이 이 논제를 입증해 주는데 법에는 일자 및 년도, 금식, 철야, 노동, 순례 등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모든 규정들은 명백히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죽음과 함께 끝난다.⁶⁴⁾ 교회법에 의해 제정된 징벌들은 오직 산 자들에게만 부과되어야 한다.⁶⁵⁾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의 지고하신 법정 앞에서 이미 부르고 계신 자를 그 열등한 사법권에 의하여 보류한다면 그것은 사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임에 분명하다.⁶⁶⁾ 그가 죽어가는 자에게 교회법이 제정한 형벌들을 부과한다면, 그는 그 자신의 법에 따라 그 사람을 재판하고 형벌을 주는 것임이 명백한데 그것은 교회법이나 이성 혹은 교회의 통례적 관습으로부터 지지할 수 있는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하는 유일한 근거는 몇몇 개인들의 직권남용인 것이다.⁶⁷⁾ 하나님의 정의가 요청하는 바는 무엇이든 지 이미 교회의 사법권 너머에 있는데, 교회법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거나 부과하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⁶⁸⁾

교회법에 의한 형벌들이 오직 법적 범죄들에만 부과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것이라고 믿는데 따라서 면죄부들은 (만약 그것들이 교회법의 면죄라면) 오직 범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⁶⁹⁾ 면죄부들은 오직 교회법들에 의해 징계되는 죄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데 확실한 공적 범죄들 혹은 더 나아가서 언급해야 한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범죄라고 확신하는 것들 즉 간음, 절도, 살인 등에 관해

58) 위의 책, 95면.

59) 위의 책, 102면.

60) 위의 책, 102면.

61) 위의 책, 106면.

62) 위의 책, 106면.

63) 위의 책, 107면.

64) 위의 책, 107면.

65) 위의 책, 110면.

66) 위의 책, 113면.

67) 위의 책, 113면.

68) 위의 책, 115면.

69) 위의 책, 118면.

말한 바처럼 공적으로 범죄로서 인정되는 행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죄도 교회법들에 의해 징계될 수 없는 것이다.⁷⁰⁾

루터에 의하면 오직 교회법에 의한 형벌들만이 면죄부들을 통하여 사면되기 때문에 확실히 교회법들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면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⁷¹⁾

문자들과 면죄부들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형벌들 즉 교회법에 관한 형벌들을 제거할 뿐이다. 면죄부들에 의하여 수여되는 것은 참회도 신앙도 은혜도 아니라, 교회법들에 의해 제정된 외적 인간의 형벌들의 사면에 불과한 것이다.⁷²⁾ 이것은 면죄부에 대한 루터의 가장 중요한 논증들 중의 하나인데 그는 면죄부 자체에 격렬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대중으로 하여금 면죄부 구입이 그들을 교회에 의해 부과되는 형벌들로부터 해방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해방하며 구원을 확신하게 만든다고 믿게 하였던 점들을 반대한 것이다.⁷³⁾

IV.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에 나타난 교회법 비판

이 논문⁷⁴⁾은 당시의 교황권의 독일 민족에 대한 압제와 착취를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개혁을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호소한 내용으로서 루터의 당시의 가톨릭 교황권에 대한 비판 내용과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시각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루터는 논문 서두에서 독일을 억누르는 고난과 압박은 자신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자극하여 수차례나 울부짖어 도움을 간구하게 하였으며, 이제 루터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큰소리로 외치고 호소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고 시작하고 있다.⁷⁵⁾ 루터는 하나님께 돈의 올라미와도 같은 교회법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도록 해달라고 탄원한다.⁷⁶⁾

1. 영적 권세를 세속 권세 우위에 놓는 교회법 구조에 대한 비판

(1) 로마 가톨릭의 입장: 세속 권세에 대한 영적 권세의 우위성

70) 위의 책, 119면.

71) 위의 책, 164면.

72) 위의 책, 174면.

73) 위의 책, 174면, 각주 61.

74) 본문은 독일어 원서에서 번역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Martin Luther, *An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원당회 옮김, 세창미디어, 2010. 영어에서 번역된 자료는 루터 選集 제9권, 지원용 감수편집, 컨콜디아사, 1983, 137-225면, *Martin Luther :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루터저작선」, John Dillenberger(ed),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480-568면.

75) 위의 책, 14면.

76) 위의 책, 102면.

루터에 의하면 로마파들⁷⁷⁾은 세상권세에 억눌렸을 때, 세상권세가 그들을 누를 어떤 권리도 없으며 반대로 성직자의 권세가 세상권세 위에 있다고 말하고 주장해 왔다.⁷⁸⁾ 그들은 교황, 주교들, 사제들, 수도사들을 영적계층이라고 부르고 영주들, 군주들, 직공들 및 농부들을 세속적 계층이라고 부른다.⁷⁹⁾ 로마 가톨릭 교회법은 이러한 논리에 의해 교회법상 성직자들이 세속법의 관할 및 처벌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2) 불평등한 교회법의 실례: 성사금지령

교회법에 있어서 성직자들의 자유와 생명, 재산에 대해서는 너무 높게 관심을 두는 반면, 마치 평신도는 그들만큼 영적이고 선한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또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대접받는 것은 지나친 일이었다.⁸⁰⁾ 일례로 사제가 살해당하면 해당 지방엔 성사금지령이 떨어지는데, 농민이 살해를 당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같은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크게 차별하는 것은 근거가 없고 단지 인간의 법과 조작으로부터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⁸¹⁾ 이렇게 예외를 만들고, 죄를 사면하거나 묻지 않았던 것은 결코 선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⁸²⁾

교회법에 기록되어 있듯이 “설령 교황이 큰 무리의 영혼들을 악마에게 넘겨줄 만큼 사악하기 그지없다고 할지라도, 그를 파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틀림없이 악마의 우두머리 자신이고 그들은 로마에서 이 가증스럽고 사악한 근거에 따라 모든 체계를 세운 것이다.⁸³⁾

(3) 루터의 평등사상의 신학적 기초: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평등성

모든 기독교인은 진실로 영적 계층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 직무상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고⁸⁴⁾ 기독교에서 사제의 신분이란 관리자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⁸⁵⁾ 평신도, 사제, 영주들, 주교들, 이른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는 실제로 직무와 일에 관한 차이만 있을 뿐 신분의 차이는 없다.⁸⁶⁾ 사제, 주교, 교황처럼 영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일과 직무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성사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기독교인들과 차이가 없고, 그들보다 더 고귀한 것도 아니다.⁸⁷⁾ 모든 기독교인은 진실로

77) 이 용어는 루터가 교황권을 지나치게 내 세우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다.

78) 위의 책, 17면.

79) 위의 책, 18면.

80) 위의 책, 25면.

81) 위의 책, 26면.

82) 위의 책, 26면.

83) 위의 책, 26면.

84) 위의 책, 19면.

85) 위의 책, 21면.

86) 위의 책, 22면.

87) 위의 책, 22-23면.

영적 계층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 직무상의 차이 이외에는 아무 차이도 없다.⁸⁸⁾ 평신도, 구두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자 자신의 일과 직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모두가 서품을 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⁸⁹⁾

(4) 루터가 제시하는 평등사상의 구현 방법: 세속 정부에 의한 법의 평등한 적용

세상정부가 성직자를 제압하지 못하며, 그들을 벌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과 연사는 기독교적이지 않고⁹⁰⁾ 세상정부는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채찍을 손에 든다.⁹¹⁾ 세상 권력은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므로, 해당자가 교황이든 주교들이든 사제들, 수도사, 수녀들, 그 밖에 누구든 그 신분에 관계없이 기독교의 전 몸통을 통하여 아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⁹²⁾ 로마의 서기들이 세상권력의 영향권에서 면제받도록 법률을 제정한 것은 그들이 멋대로 악을 행하기 위함이다⁹³⁾. 기독교계에서의 세상권력은 그 관련자가 교황이든 주교이든 사제이든 상관없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직무를 행사해야만하고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⁹⁴⁾. 교회법이 이에 반해 말한 것은 순진히 날조된 로마파의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⁹⁵⁾ 베드로는 세상 권력을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⁹⁶⁾,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바로 교회법이다. 교황이든 주교이든 사제들이든 고려치 말고, 벌을 받아 마땅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처벌하고 죄과를 물어야 한다.⁹⁷⁾ 만일 세상의 칼이 먼저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저런 사제들의 권위를 제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⁹⁸⁾ 만일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가 벌을 면할 충분한 이유는 없고 죄가 있는 곳에서 벌로부터 도피할 길은 없다.⁹⁹⁾

2. 경제적 착취를 조장하는 교회법상의 교계 구조

(1) 추기경에 의한 재산 소유

88) 위의 책, 19면.

89) 위의 책, 23면.

90) 위의 책, 23면.

91) 위의 책, 23면.

92) 위의 책, 23면.

93) 위의 책, 24면.

94) 위의 책, 24면.

95) 위의 책, 24면.

96) 베드로 후서 2장 10절.

97) 위의 책, 25면.

98) 위의 책, 25면.

99) 위의 책, 27면.

루터는 교회법상의 추기경 제도를 비판하면서 벨쉬¹⁰⁰⁾와 독일의 예를 들고 있다. 벨쉬와 독일은 부유한 수도원들, 교회시설들, 영지들과 교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추기경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교구와 수도원, 고위성직자 관할구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¹⁰¹⁾ 이로 인해 벨쉬 지역의 고위성직자 관할구역과 모든 교회의 조세는 로마로 향하고, 도시들은 쇠퇴하였으며, 나라와 국민은 피폐해졌는데 그 이유는 추기경들이 재산을 소유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⁰²⁾ 이제 이러한 황폐화 작업을 독일에서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고 비판한다.¹⁰³⁾ 독일에서는 그들은 주교들과 수도원들, 영지들 중 가장 좋은 자리만 골라내어 차지하고 있고, 10명 내지 20명의 고위 성직자들을 모으고 그들 각자에게 얼마씩 받아서 목돈을 만들려고 교회를 빙자한 알뜰한 속임수를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뷔르츠부르크 수도원장은 1000굴덴을 바치고, 밤베르크 역시 얼마의 돈을 바치며, 마인츠, 트리어 등은 더 많이 바치고 이런 식으로 1000굴덴 또는 10000굴덴의 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기경은 로마에서 부유한 제왕처럼 호사를 누린다.¹⁰⁴⁾ 루터에 의하면 추기경이란 여러 주교구와 관할구역을 놓고 돈거래와 싸움질만 할 따름이다.¹⁰⁵⁾

(2) 교황사절들의 불법행위

무엇보다 교황사절들을 그들의 전권과 함께 독일 땅에서 쫓아내야 하는데 교황사절들은 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그들의 특권을 거액의 돈으로 팔고 있는데 예컨대 그들은 돈을 받고 불법적 재산을 합법화하고, 맹세와 서약, 계약을 폐기하며 서로가 다짐했던 신뢰와 믿음을 깨뜨리고 또한 깨뜨릴 것을 가르치면서, 교황만이 이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말한다.¹⁰⁶⁾

(3) 주교의 권한 대행자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가혹한 착취

동시에 주교의 권한 대행자들에 의하여 자행되는 가혹한 착취가 모든 주교구에서 금지되어야 하고 그들은 다만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만을 취급하고, 돈이나 재산, 육체, 명예 등에 관한 것들은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는 신앙이나 바른 생활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저들의 파문과 추방 선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100) 이탈리아 지역.

101) 위의 책, 39면.

102) 위의 책, 39면.

103) 위의 책, 39면.

104) 위의 책, 40면.

105) 위의 책, 41면.

106) 위의 책, 115-116면.

(4) 보좌주교제도

교황은 봉급이 많이 나가는 곳, 아니면 연로하거나 아프거나 무능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주교구 소재지를 노리는데, 이들 재직자에게는 교황청이 재직자의 의지나 동의 없이 조수 역할을 하는 보좌주교를 보내는데 보좌주교는 교황의 심복이거나 그 직책을 돈으로 사는 경우, 아니면 로마를 위해 부역한 대가로 그 직책을 얻기 때문에 그만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이때 성직록을 내어 주어야하는 하는 사람의 자유선택은 성직자 회의나 교회법을 통하여 중지되며, 따라서 모든 것은 로마로 가게 된다.¹⁰⁷⁾

3. 경제적 착취를 야기시키는 교회법상의 제도

(1) 성직 취임세

예전에 독일 황제와 영주들은 교황이 독일의 모든 영지에서 성직취임세¹⁰⁸⁾를 받는 것을 허용했는데 그것은 본래 교황이 터키인들과 불신자들에게 맞서 기독교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재물을 이 거액의 돈으로 모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하지만 이들은 이 돈을 축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로마에 많은 직책과 직무를 만들어 그것으로 그들에게 매해 봉급을 주었다고 비판한다.¹⁰⁹⁾ 한 편 터키인들과 싸운다는 명분을 위해 면죄부도 발급하는데, 이러한 돈들이 모조리 밀 빠진 자루 속으로 들어간다고 비판 한다.¹¹⁰⁾

루터에 의하면 성직취임세가 너무나 형편없이 남용되고 협정된 대로 지켜지지도 않기 때문에, 독일과 주교들과 영주들은 독일의 땅과 백성들이 것처럼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파멸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되고, 오히려 그들은 황제 내지 국가의 법령을 통하여 성직취임세를 국내에 보유하거나 또는 완전히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¹¹⁾

(2) 교황의 달

1년이 교황과 지도자급인 주교들 및 주교구 사이에 분할되어 있기에, 교황은 적어도 1년에 격월로 영지를 6개월간 차지하고 자기 달에 해당하는 영지를 대여할 수 있는데¹¹²⁾, 그렇게 해서 거의 모든 영지, 특히 가장 좋은 성직록과 고위 성직들은 로마로 옮

107) 위의 책, 50면.

108) 성직자들이 성직을 받은 첫째 수입의 절반을 교황청에 헌상하는 일종의 세금. 공식인 경우에는 교황청이 1년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수입의 절반을 가져갔다. 독일어로는 Annaten. 물론 이 제도는 공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

109) 위의 책, 43면.

110) 위의 책, 43-44면.

111) 위의 책, 44면.

112) 이는 교황의 보류권의 남용을 다루는 문제로서 곧 공식 중의 교직을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공인된 교황권에 관한 것이다.

겨가게 된다.¹¹³⁾ 루터는 교황이 독일의 주교구와 성직록을 강탈할 수 있는 규칙과 법규들을 제정했다고 비판한다.¹¹⁴⁾

(3) 팔리움(Pallium)

주교는 거액의 돈으로 팔리움을 사고 무서운 서약으로 교황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서는 어떤 비준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¹¹⁵⁾ 일찍이 그들은 교회법으로 팔리움은 무료로 수여하고, 교황의 시종은 수를 줄일 것이며, 분쟁을 완화하고, 주교구와 주교들에게 자유를 허락한다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으나, 이로 인해 돈이 모일 기색이 보이지 않자, 주교들과 주교구로부터 모든 권위를 빼앗았다¹¹⁶⁾

(4) 위임

교황은 추기경이나 다른 자신의 직속에게 부유하고 넉넉한 수도원이나 교회를 보유하도록 위임하는데, 이는 수도원을 주거나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¹¹⁷⁾ 위임받은 자의 임무는 기존의 재직자를 몰아내거나 재물과 세입을 수령하고 모종의 배신한 사이비성직자를 앗히는 것이다.

(5) 연합과 합병

두 교구나 두 주교구 등이 있을 때에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는 인콤포티빌리아(incompatibilia)라고 불리는 몇 개의 영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로마교황청과 교황은 거기에 연합(unio)과 합병(incorporatio)이라는 주석을 달아 교회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즉 많은 인콤포티빌리아들을 통합함으로써 하나가 다른 것의 일부가 되어 마치 하나의 성직록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하고 이렇게 하여 그것은 결코 인콤포티빌리아가 아니면서 교회법에는 저촉되지 않게 하고 따라서 그런 주해를 교황과 그의 서기관에게서 사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외에는 누구나 법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게 한다.¹¹⁸⁾ 연합도 같은 방식인데, 교황은 여러 영지들을 나무더미처럼 함께 묶어 놓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져 있기에 하나의 영지로 간주하도록 위장하는데 이 모든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는 교묘한 주해의 힘을 빌려 그렇게 되는 것이다.¹¹⁹⁾

113) 위의 책, 45면.

114) 위의 책, 46면.

115) 위의 책, 48면.

116) 위의 책, 49면.

117) 위의 책, 51면.

118) 위의 책, 52면.

119) 위의 책, 52면.

(6) 관리제도

교황이 제시하는 또 다른 주식 가운데 하나는 관리제도(Administratio)인데 이는 즉 한 사람이 자기 주교구 외에 대수도원 교구나 고위성직을 가질 수 있으며, 일체의 관련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¹²⁰⁾

(7) 가슴속의 보류

교황은 “그의 심정의 유보와 전권에 의한 자기규정”이라는 책략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로마에서 관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서명하고 승인된 성직록을 얻었을 경우 돈을 싸들고 오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 같은 성직록을 원하는 경우, 교황은 그 성직록을 처음 사람에게서 빼앗아 다음 사람에게 주는데, 만일 사람들이 이를 부당하다고 말하면, 교황은 공개적으로 법을 거슬러 권세를 행했다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변명하는데 즉 교황은 한평생 이제까지 그런 영지에 관해 생각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것을 다만 가슴과 심정으로 자기 자신과 절대권능에 의거하여 유보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교황은 교묘한 주해를 발견해 낸다고 비판한다.¹²¹⁾

(8) 심중 유보 및 유보사항

무엇보다 허위적인 심중 유보(reservatio pectoralis)야말로 참기 어려운 조항인데 이를 통해 교황은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 모든 사람을 파렴치하게 속이고 우롱한다.¹²²⁾ 유보사항 (die casus reservati) 또한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쌍한 양심의 소유자들이 미치광이 폭군에 의해 함정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¹²³⁾

(9) 거래소(성직록 관할청)

교황은 이 모든 거래를 위하여 자신의 판매처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청 안에 있는 다타리우스의 집이고, 이런 식으로 영지와 성직록을 거래하려는 사람은 모두 여기로 와야 한다. 사람들은 여기서 교묘한 주해와 조작법을 사들여서는 무지막지한 것 거리를 행사할 권한을 얻어야만 하고 여기서는 온갖 고리대금업이 돈을 위해 정당화되

120) 위의 책, 53면.

121) 위의 책, 54-55면.

122) 위의 책, 68면.

123) 위의 책, 69면.

며, 도둑질과 강도질로 얻은 모든 재산이 합법화된다고 비판한다. 그러다보니 루터에게 있어서 모든 교회법이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올가미가 되기 위해 제정된 것처럼 보였다.¹²⁴⁾

4. 로마 교황청의 불합리한 사법구조

세상일들이 로마에서 다루어짐으로 모든 나라에 건디기 힘든 손실이 초래되고 이런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며, 게다가 로마의 재판관들은 여러 나라들의 관례와 법률, 습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사태를 강요하거나 자신들의 법률과 견해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되어 재판 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¹²⁵⁾

5. 기타 교회법상의 불합리한 장들

주교들은 교황에게 불법으로 서약을 강요당하고 있는데, 교회법 가운데 쓸모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시그니피카스티(Significasti)¹²⁶⁾라는 장은 이에 관해 독선적이고 무분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주교들은 종들처럼 사로잡혀 있다. 로마파들은 신앙을 약화시키고 기독교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광기의 법률로 육체와 영혼, 재산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주교들의 신분과 직무, 일뿐만이 아니라 임명권까지도 꼼짝 못하게 손에 쥐고 있다¹²⁷⁾. 한편 교황의 권위를 황제의 권위보다 높이고 있는 솔리테(Solita)¹²⁸⁾라는 장이 있는데,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교황이 이런 기만적이고 전도된 근거에 따라 ‘목회Pastoralis’라는 교서에서 황제의 자리가 공석이 된다면 자신이 제국의 합법적인 상속자라고 자랑하는 것 역시 가소롭고 유치한 것이다. 교회법에서 이런 뻔뻔하고 조야하고 광기 어린 거짓말을 읽고 가르쳐야 하며, 또한 기독교의 교리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루터에게는 매우 역겨운 것이었다.

6. 성직자들의 결혼 문제 : 자유를 저해하는 교회법 제도의 예

루터에 의하면 사제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또한 얼마나 여러 가련한 사제들이 처자식들에 의한 부담으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들을 돕는 것이 매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뭔가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황과 주교들은 사태를 되는 대로 방치하며, 심할 경우에는 부패에 이르도록 놓아둔다. 루터에 의하면 신부는 아내 없이 살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며, 오히려 한 아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¹²⁹⁾ 로마 교황청은 자기 월권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사제들의 결혼을 금

124) 위의 책, 56면.

125) 위의 책, 66면.

126) 주교 임명 및 팔리움의 수여와 관련된 서약의 강압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27) 위의 책, 72면.

128) 세상권력을 영적 권력의 아래에 둔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회법.

지하는 일반적인 율법을 만들어냈다.¹³⁰⁾ 루터는 다시 자유롭게 결혼하도록 하고, 누구나 결혼을 하든 아니든 자유의사에 맡기자고 충고한다.¹³¹⁾ 교회의 공의회는 이런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유혹과 죄를 피하도록 결혼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속박하지 않으셨으므로, 그 누구도 이들을 속박해서는 안 되며, 속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¹³²⁾ 실로 얼마나 많은 광기의 법학자들이 교황과 더불어 결혼장애물을 고안해내고, 그것으로 얼마나 결혼생활을 방해하고 깨뜨리고 혼란에 빠지게 하였는지 비판한다.¹³³⁾

저들은 교회법으로 사람들을 포박하고,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훔쳐감으로써, 그것을 돈으로 다시 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들은 사람들의 양심을 너무나 불안하고 소심하게 만들어 놓았다.¹³⁴⁾

7. 대학에서의 교회법 연구에 대한 비판

교회법은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철저히 말살하고, 특히 교황의 칙령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교회법 연구는 성서에 장애가 될 뿐이고 이런 연구의 대부분은 그저 탐욕과 오만불손의 분위기만을 드러낼 따름이다.¹³⁵⁾ 설령 그 가운데 좋은 것이 종종 있을지라도,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인데 왜냐하면 교황이 모든 교회법을 그 자신의 마음의 상자 속에 가두어 놓고 있어서, 차후로 교회법 연구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거짓말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¹³⁶⁾ 루터에 의하면 교회법은 책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과 그에게 알랑거리는 아침꾼들의 방자함 속에 들어 있으며 어떤 사안이 간혹 교회법에 철저히 기초해 있었을지라도, 교황은 항상 마음의 상자를 준비해 두고 있으니 모든 법과 온 세상이 그의 마음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¹³⁷⁾ 이렇게 그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법령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법령을 지키게 하거나 돈으로 면제받도록 강요한다.¹³⁸⁾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모든 교회법을 폐기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불손한 의도에 따라 자신들이 온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법 관련서적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129) 위의 책, 88면.

130) 위의 책, 89면.

131) 위의 책, 89면.

132) 위의 책, 90면.

133) 위의 책, 94면.

134) 위의 책, 103면.

135) 위의 책, 130면.

136) 위의 책, 130면.

137) 위의 책, 131면.

138) 위의 책, 131면.

8. 교회법상의 형벌인 파문에 대한 비판

교회법에서 몇 가지 벌금형이나 징벌, 성사금지령(Interdikt)은 없어져야 하고, 파문은 성서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곳 외에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나 공적인 죄를 짓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현세적인 재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나 현재 사태는 전도되어 있고, 대부분이 파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모독한다. 그리고 모든 파문은 지금 현세적인 재산을 위해서만 행해지고 있고 영적 불법이야말로 재산 축적의 근원지이다.¹³⁹⁾

어떤 영지와 관련하여 경건한 사제들을 강제로 소환하여 괴롭히고 소송을 제기하도록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막아야만 하는데 만일 이런 일로 말미암아 로마에서 어떤 파문이나 교회적인 압박이 내려온다면, 독일인들은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 그들은 도둑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파문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토록 불경스럽게 남용하기에 엄벌에 처해야 하고 기독교 권위의 남용을 참도록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¹⁴⁰⁾

V. 교회법적 공백으로 초래된 사회적 위기 및 종교개혁가들의 대응

1. 교회법적 공백으로 초래된 사회적 위기

1520년 후반기와 1530년 전반기에 교회법을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는 루터의 급진적 목표는 종교개혁 교회와 독일국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¹⁴¹⁾

신생 종교개혁 교회들에 있어서 성직자들과 회중들은 교회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교리적, 전례적 느슨함의 허가증으로 생각했다.¹⁴²⁾

전통적으로 교회법적 체계는 교리와 성례문제를 풍부하고 자세히 다루고 있었는데 종교 문제에 관해 초보적 단계의 세속법은 종교적 질서와 정통성을 정의하고 유지하는데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⁴³⁾

한편 개혁가들은 교회법과 세속법 사이에, 그리고 세속 당국과 성직자 사이에 너무 깊은 썩음을 박았다. 그들은 세속당국에 법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였지만, 세속법의 합법적 원천으로서의 교회법을 제거했고, 그것을 형성하고 강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원으로로서의 성직자들을 제거하였다. 1530년 중반에, 가톨릭 교회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판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던 세속 당국은 효과적인 세속규정과 방침이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많은 세속 당국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유효한 세속법적 개혁을 수행할 수 있

139) 위의 책, 98-99면.

140) 위의 책, 68면.

141) Witte, *Law and Protestantism*, 65면.

142) 위의 책, 65면.

143) 위의 책, 65-66면.

는 의지와 수단이 부족했고 많은 종교개혁 교역자들은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들에 개입할 자격과 능력이 부족하였다. 1530년대의 연대기 기록가들과 팜플렛 작가들은 세속 당국이 몰수한 교회 재산들과 기부재산들이 과부, 고아, 빈민, 병자들이 곤궁에 처해있는 동안 여전히 개인의 수중에서 시간을 지체시키고 있다고 불평했고 다른 이들은 독일에 서 공중도덕이 붕괴되었다고 불평했다.¹⁴⁴⁾

개혁가들의 급진적 이상 - 즉 복음에 의해서만 다스려지는 순수한 교회, 기독교인 세속 당국자들에 의해 세속법으로만 다스려지는 국가의 이상은 독일을 보다 격렬한 법적, 사회적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¹⁴⁵⁾

2. 종교개혁가들의 교회법 공격에 대한 법률가들의 비판

한편 그 당시의 주도적인 법률가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적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러한 위기의 많은 부분에 대해 교회법을 공격한 루터와 멜란히톤을 비난했다.

(1) 예롬 쉬르프(Jerome Schürpf)의 비판

루터의 비텐베르크의 동료이자 친구인 예롬 쉬르프의 예가 전형적인 예인데, 그는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인 동시에 지원자였고, 신학적, 법률적, 교회적 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대화들을 나누었다. 95개조와 관련된 요한 에크와의 논쟁에서 대응하는 법, 1518년 카예탄 주교의 소환에서 대답하는 법, 1520년 위협적인 파문교서에 대응하는 법 등에 대해서 조언해 주었다. 쉬르프는 루터가 교회법을 태울 때도 루터 옆에 있었고, 1521년 보름스 의회에도 동석했고, 첫 청문회 때에 법률 조력자로 도왔다. 루터의 바르트부르크 시절(1521-1523)과 그 후에 선제후와 루터 사이를 중재하는 것을 도왔고, 루터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다.¹⁴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르프는 루터가 교회법을 완전히 근절시키려고 하는 것과 교회재산을 몰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쉬르프는 국가가 교리, 전례, 도덕적 범죄에 대한 교회의 영적인 관할권을 강탈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이고 악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는 국가의 교회법 폐지를 비기독교적인 죄악으로 보았다. 그는 교회재산권의 몰수와 국가의 몰수를 강도 및 강탈, 성상파괴로 여겼으며, 제후의 성직자 임명과 성직록에 대한 통제를 야만적이라고 보았다. 성직자는 평신도의 모든 재판관할권적 요구 및 시민적 과세로부터 자유로와야 하는데 이는 신성한 권리의 문제라며 이후의 법률적 의견에서 피력하였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역의 종교적 지도자는 주교이고, 교회법은 어떠한 일반인도 그 성직록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세속법은 교회법

144) 위의 책, 66면.

145) 위의 책, 67면.

146) 위의 책, 67면.

에 종속되어야 한 다라고 하였다.¹⁴⁷⁾

(2) 울리히 차지우스(Ulrich Zasius)의 비판

프라이부르크의 뛰어난 법률가 차지우스는 종교개혁의 지지에 주도적이었다가 루터의 반교회법주의를 원리가 없고 부당한 처사라고 여겼다. 차지우스는 루터가 교회법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으며, 실제로 있어서 종종 교회법과 세속법이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것도 있는데 교회법 조항이 모두 세속법 조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줄로 여긴다라고 하며, 오랫동안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질서정연함을 전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고, 수세기 동안 유효했던 법의 원천을 일축하는 것은 무분별하고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것은 법제정자에게는 오래되고 형평 있는, 검증된 법의 원천이 없이 남겨두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사건들에 대해 행동해야 할 정당하고 영예로운 표준들 없이 놔두게 되는 것이며, 판사들에게는 불의와 남용을 행하도록 너무 광범위한 재량을 주는 것이고, 교회와 신앙에는 중심적 권위의 부재 상태를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차지우스는 루터의 지원자 토마스 블라우어에게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온 모든 박사들의 의견보다 루터의 의견만이 오히려 더 선호된다는 말인가? 그 이유를 나에게 말해보라”고 썼다.¹⁴⁸⁾

(3) 법률가들의 비판에 대한 검토

루터 및 종교개혁가들의 교회법에 대한 극단적 공격과 그로 인한 결과들 특히 법적 아노미 현상은 법률가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당시의 법률가들이 가톨릭 문화권에서 성장했고 이미 그 문화와 교회법이 너무 깊숙이 자신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기에 루터처럼 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는 법적 공백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를 선택했다고 보여진다. 특히 차지우스의 교회법적 권위의 차등성 및 세속법적 가치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루터의 교회법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에 대한 중도적인 견해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있어서는 교황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모든 교회법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그 기초가 되는 교회법 자체의 제거라고 보았다.

147) 위의 책, 68면.

148) 위의 책, 68-69면.

3. 비판의 수용 : 교회법과 종교개혁 이념의 절충

(1) 내용

사실상 교회법의 폐지는 복음적인 교회와 국가를 최종적 권위가 없는 상태로 놓아두었는데, 1530년을 지나면서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법률가들은 교회법과 세속법 그리고 교회와 세속공동체의 관계에 관해 혁신적인 절충안을 만들어 내었다. 복음적인 법률가들은 신법과 교회법 그리고 세속법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창출해내고 법과 질서에 대한 책임에 있어 세속당국과 성직자들을 조화시키는 이론을 발전시켰다.¹⁴⁹⁾ 1530년과 그 이후에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교회는 초기의 교회법¹⁵⁰⁾을 현재의 교회법과 규율을 위한 가치 있는 원천으로 보게 되었다.¹⁵¹⁾

1543년 쿠르브란덴부르크의 종교법원 법령은 종교법원의 구성원들은 교회법과 세속법에 따라 판결해야한다고 했고, 1543년 볼펜뷔텔의 교회 법령은 교회법원의 법률가들 중에 적어도 2명은 교회법학자들 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¹⁵²⁾ 교회적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복음적 교회와 세속 당국은 교회법의 선례와 유추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종교개혁 초기의 교회법에 대한 맹렬한 비난은 독일을 혁명으로 몰아부쳤지만, 30년이 지난 대략 16세기 중반의 시점에서 그것들은 시들해지고 약화되었다.¹⁵³⁾ 독일의 법률가들은 옛 교회법 질서와 루터의 새로운 혁명적 이상들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법적 착상과 제도들을 만들어냈다. 세속법에 있어서 그것들의 위치는 고대의 계보와 권위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와 자연법과 더불어 근대적 유용성과 적합성으로 귀착하는 것이었다.¹⁵⁴⁾

1550년 중반까지 중세 교회법은 복음적인 독일 사회로 새롭게 회귀했으나 그것들의 대부분은 이제 세속 권력과 세속법 아래의 통제에 있게 되었다.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교회법의 회귀는 핵심적인 성서의 가르침에 이르는 전수된 교회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이는 마치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의 주요 가르침을 위해 전해 내려온 유대인들의 법으로 회귀한 것과 같은 이치였다. 그들은 교회법의 자아 숭배적인 교황주의 부착물들을 벗겨버리고 성서와 자연 규범의 핵심적인 해석과 적용으로 돌아갔다.¹⁵⁵⁾

149) 위의 책, 70면.

150) 이는 중세의 교황적 권위가 체계적인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전의 초대 교회의 교회법을 의미한다.

151) Witte, 앞의 책, 72면.

152) 위의 책, 75면.

153) 위의 책, 82면.

154) 위의 책, 83면.

155) 위의 책, 83면.

(2) 종교개혁가들의 실례

이 때에는 멜란히톤의 교회법에 대한 적대감이 다소 완화된 시기이다. 멜란히톤은 특히 로마법을 신적 이성의 구현체로서 선호하였는데 교회법이 기독교화 된 후기 로마법의 해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비록 교황주의자들이 교회법속에 많은 오류들을 주입하였지만 세속 당국이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했고, 이러한 견해가 그 당시 많은 법률가들에게 영향을 주어 이제 교회법을 로마법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세속법의 유효하고 가치 있는 원천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의 전반적인 가정은 교회법에는 선하고 악한 조항이 모두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유용하다는 것이었다.¹⁵⁶⁾

라자루스 슈펜글러(Lazarus Spengler)는 그의 동료에게 “우리는 거미처럼 교회법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빨아먹고 버려야한다”고 표현했다. 교황 우위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학적으로 적대적인 조항들은 버리고, 성직자의 특권이나 주교의 특면권 같이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조항도 역시 거의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나, 성서에 토대를 두고 있고 기독교적이고 경건하여서 올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한 삶에 도움이 되는 조항 등을 기꺼이 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¹⁵⁷⁾

많은 법률가들이 슈펜글러의 감각을 받아들여 교회법을 시민적 입법 및 세속법원을 위한 커다란 유용성으로 강조하였다. 예로 쉬르프는 교회법과 세속법의 전통적인 상호의존을 강조했고, 복음적인 세속적 당국들이 지속적인 연합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했다. 루터주의 법학자 요한 올텐도르프도 그의 저서들을 통해 많은 점에서 교회법의 원천과 세속법의 원천이 실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교회법이 신법과 자연법에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해야한다고 썼다.¹⁵⁸⁾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루터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클링이 1543년에 저술한 『결혼 사례들에 관한 소책자』(Tract on Matrimonial Cases)는 전통적인 교회법 형식들에 대한 관심을 조명하며 설명하였고 이 책자에서 클링은 결혼에 관한 새로운 복음주의적 신학을 수용하였음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도 그가 이 글을 씀에 있어서, 교회법을 전반적으로 따랐는데, 이는 제국 시대에 결혼에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 의견의 틀을 세울 때 종종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훨씬 더 가치 있고 뛰어나 보일 수 있는 다른 법들(모세 이전과 그 이후의 관습들과 사례들, 모세 법 자체, 신약 성서, 그리고 로마법 등)이 존재했겠지만, 그러한 법들은 완전히 충분하지 않거나 또는 클링 당시의 세대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클링은 교회법이 구약과 신약, 로마법, 그리고 지역 관습에 있는 가장 귀중한 부분들에 부합해 왔으며, 또한 그 교리는 수세기에 걸쳐서 정제된 것이라고 믿었다. 교회법학자들은 이러한 모든 법에 대한 마찰들을 해결해 나갔으며, “기독교적이고 공평한” 법의 근원을 체계화 했으며, 교회법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냥 벗어 버려서도 안

156) 위의 책, 77-78면.

157) 위의 책, 78면.

158) 위의 책, 78면.

되고, 벗어 버릴 수도 없는 것이었다.¹⁵⁹⁾

(3) 평가

전통적인 교회법을 수용했던 현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¹⁶⁰⁾ 결국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유럽 전역을 그들의 제도를 통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지배해 왔으며,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했던 법률가들과 신학자들은 이미 교회법이 세련되게 짜여진 법체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유럽 대학들에 있는 법학 교수들과 신학 교수들은 교회법에 관한 강의를 정기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이와 같은 관행은 심지어 종교개혁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¹⁶¹⁾

이러한 결과들은 종교개혁의 태동에 대한 루터의 과도한 승리주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루터는 예루셈 쉬르프가 “강탈, 야만, 약탈” 이라고 불렀던 조치들을 통해 교황권 중심의 가톨릭 교회의 법적 지배 영역을 세속적 권위로 이전시켰고,¹⁶²⁾ 이는 중세적인 교권적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VI. 루터주의 개혁법령들의 제정

1. 배경 : 15세기의 법개혁 운동의 영향

15세기와 16세기에 도시와 영방에서 일어났던 지역적인 법 개혁¹⁶³⁾은 부분적으로 교회법과 교회정치체, 교회재산권의 남용, 특히 교회재판관할권의 대담한 확장과 교회의 재산권 보유를 개혁하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법적 개혁은 16세기에 교회에서 국가로 대량의 재판관할권이 이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된 가르침 중의 하나는 법은 국가의 영역이지 교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재판관할권을 통제했던 15세기의 법개혁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이다. 루터주의 개혁법들은 이러한 경향들을 포섭하면서 지역교회의 재산, 성직자 등에 대한 주된 법적 권위를 지역 세속당국으로 옮기면서 가속화시켜나갔다.¹⁶⁴⁾

159) 위의 책, 79면.

160) 로제는 종교개혁의 역사시기 구분에 있어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급작스럽게 바뀌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고 한다. Lohse, Bernhard,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38면, 이러한 관점에서의 종교개혁의 성격에 대한 분석은 김영도, “종교개혁,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 「신학과 목회」, 영남신학대학교, 2001.

161) Witte, *From Sacrament to Contract*, 43면.

162) Witte, *Law and Protestantism*, 84-85면.

163) Franz, Wieacker,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History of Private Law in Europ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ermany」, translated by Tony Weir,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43-167면.

164) 위의 책, 179면.

이 과정에서 복음적인 운동에 가담했던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법률가들이 지역법정의 판사 혹은 시의회의 비서 혹은 법률 고문이 됨에 따라 새로운 법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많은 복음적인 법률가와 신학자들은 법원, 지역 시의회, 개인소송에 관해 공식적인 법률 의견들을 내어 놓았다.¹⁶⁵⁾

2. 루터주의 신학의 법제화 : 루터주의 개혁법령의 제정

(1) 법제화의 착수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혁의 법제화 여부다. 개혁이 대중적, 도덕적 힘을 가지려면 법제화되어야 한다. 개혁적 강령들이 법률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면, 개혁가들은 그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거의 성취하게 된다. 개혁적 강령들은 합법적인 제도화를 통해서 나름의 교유한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혁을 법제화 하는 데는 정치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프로테스탄트 개혁가들이 시작한 혁명은 도시 정무관과 제후들의 지원을 통해 조직을 갖추고 제도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정치적 도덕적 법령들에 의해서 공식적 모습을 띠게 되었던 것이다.¹⁶⁶⁾

법령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선포되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아마도 제후들이 자신의 권위로 입법해서 공포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제후들이 위원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입법해서 발표하기까지 전적으로 일임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자신의 영지 내에 있는 한 도시의 정무관들과 제후 사이에 심의회를 거쳐서 발표되기도 했다. 때로는 이 법령을 적용시킬 도시의 목회자와 회의가 직접 입법하기도 했다. 예를 보면, 이 법령들을 복음주의적 노선의 주교가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는 한 지역의 목회자가 자신의 교구법으로 정한 법령을 세속 권위 당국에서도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허용하기도 했다.¹⁶⁷⁾

(2) 루터주의 개혁법령이 다루는 분야

독일 영방에서 루터주의 지도자들은 Ordnungen이라 불리는 광범위한 법령들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령들은 이전에 로마 가톨릭의 권한에 속해 있던 문제들을 규율하였다. 루터주의 개혁법령이라는 표현은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지역¹⁶⁸⁾에서 종교적이며 교회와

165) 위의 책, 180면.

166) Steven Ozment, *Protestants : The Birth of a Revolution*, 「프로테스탄티즘 : 혁명의 태동」 박은구 옮김, 해안, 2004, 170-171면.

167) Thomas Lindsay, 앞의 책, 419-420면.

168)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전국가적 현상이기보다는 그 이상을 받아들인 도시공동체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개혁의 도시적 수용현상에 대해서는 Moeller, Bernd, "*Reichsstadt und Reformation*", 「*Imperial Cities and the Reforma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H.C. Erik Midelfort & Mark U.

관련된 삶을 규율하는 일련의 성문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들은 보통 도시, 공작령, 영방에 있는 세속당국자들에 의해 공포되고 위임되었는데 그 기초자들의 대다수가 대부분 법적 훈련을 받은 루터주의 신학자들이었다. 루터주의 개혁 법령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였지만 전형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1) 종교적 교리, 전례, 예배, 교회행정 및 감독¹⁶⁹⁾ (2) 종교적인 공중도덕의 문제¹⁷⁰⁾ - 신성모독, 안식일 준수, 거짓맹세, 사치, 만취 등 (3) 빈민구제와 사회복지¹⁷¹⁾ (4) 결혼, 가족관계¹⁷²⁾ (5) 교육과 공립학교¹⁷³⁾.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새로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법보다는 세속법 아래서 그리고, 교회법정보다는 세속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¹⁷⁴⁾

(3) 루터주의 개혁법령들의 영향 및 주요 도시의 개혁법령들의 내용

교회법과 교회구조를 향한 이러한 반감이 설교단이나 팜플렛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초기에 세속당국은 이러한 교회법에 대한 반감을 새로운 세속법과 정책 속으로 옮겨 넣었다.¹⁷⁵⁾ 1530년경, 6개의 영방, 16개의 주요도시, 수많은 작은 마을들이 새로운 루터의 개혁법령들을 공포하였고, 1540년까지 그 수는 2배 이상이 되었다. 그 법령들의 지역적 차이가 어떠하든지, 새롭게 종교개혁의 이상을 받아들인 정치 공동체는 교회와 성직자의 재산과 권력을 잠식해가면서 교황과 교회법의 권위에 도전함으로써 개혁을 시작하였다.¹⁷⁶⁾

이러한 개혁들로 독일지역에 많은 법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많은 교회재산들은 세속적 과세의 대상이 되었고 몇몇 경우는 지역 당국에 의해 공립학교나 자선을 위해 몰수되기도 했다. 성직취임세, 면죄부, 다른 형태의 교회적 과세와 수수료가 줄어들었고, 어떤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금지되었다. 지역의 교회법원에 속했던 사건이 지역의 세속법원으로 이전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었다. 분쟁 시 교회법과 교회법원을 이용한다는 조항들이 계약과 조약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없어졌고, 어떤 지역에서는 단호하게 세속법으

Edwards, Jr, Labyrinth Press, 1982 ; 윌러의 연구에 대한 국내 소개는 홍치모, “독일의 종교개혁과 도시공동체” 『韓國敎會史學會誌』, 한국교회사학회, 1998 ; 이 외에 다른 연구로는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 The Appeal of Protestantism to sixteenth-century Germany and Switzerland*, Yale University Press, 1975.

169) Harold Berman, *Law and revolution, II :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179-184면.

170) 위의 책, 187-189면.

171) Carter Lindberg,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Fortress Press 1993; *European Reformations*, Blackwell Publishers , 1996. 118-127면 ; *Luther's Works : Christian in society II, vol. 45*, Fortress Press , 1985, 159-194면.

172) 루터주의 혼인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은, Witte, *From Sacrament to Contract*, 53-73면.

173) Witte, *Law and Protestantism*, 257-292면.

174) 위의 책, 183면.

175) 위의 책, 63면.

176) 위의 책, 64면.

로 금지되었다. 성직자들은 세속법에 있어서 면제와 특권들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있어서 세속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게 되었다. 도시 및 지역 의회와 법원들은 이전에 교회재판관할권에 내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경우에, 새로운 종교개혁 법령은 교회법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선언하였고, 1526년 헤세 지역에서는 모든 교회법의 조항을 금지하였으며, 1536년 하노버 지역의 교회법령은 “교회법은 너무나 많은 것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는 돈 때문에 그 제한들에 대해 특면하는데, 우리 당국은 이런 것들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¹⁷⁷⁾

종교 개혁 주요 도시들의 법령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1523년 엘보겐 법령은 공동묘지를 분할에서 매각할 때 가난한 자들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교회를 비난하였고, 공동묘지는 시민 공동체의 자산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⁸⁾ 1524년 레겐스부르크의 개혁법령은 어떤 성직자든 도시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자는 세속 법정의 징벌을 벌금형으로 피하지 못하게 하였고 도시 당국의 사전 허락 또는 직접적인 초대 없이 여하한 면죄부 설교사도 도시내에 들어 올 수 없었다. 교구 십일세 및 성직록 십일세를 징수하던 교회의 권한을 폐기되었고, 평신도들은 죄사함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¹⁷⁹⁾ 1525년 프랑크푸르트 개혁법령은 성직자의 결혼 여부를 성직자 재량에 맡겼고, 탁발수도사의 구걸행위와 설교를 금했으며, 성직자도 동일하게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취소된 성직자의 유언, 성직록,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수입을 해당 지역의 자치금고 또는 공동금고로 이전시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가 지정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였다.¹⁸⁰⁾

3. 루터주의 개혁법령들의 정착화 과정

일례로 중세시대의 결혼소송은 거의 모든 교회법정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중세의 교회법정이 일시적이든지 아니면 영속적으로 권위를 상실했을 경우에 그러한 사건을 법적 권위를 갖고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선제후령 삭소니의 교회행정의 잠정적인 합의사항이었다가 정규적인 법적 형태로 진전하였다. 목회자를 감독자로 불렀다. 순회를 위해서 4개의 지역으로 분할한 4개의 ‘순회구역’마다 목회자 하나씩을 배치해서 결혼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포함한 모든 교회적인 사건을 제후국의 공직자와 더불어서 해결케 하였다.¹⁸¹⁾

선제후 군주를 그의 영토 내에 있는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간주해 왔으나, 그가 개인

177) 위의 책, 64면.

178) Steven Ozment, 앞의 책, 187면.

179) 이 지역은 카톨릭이 강했던 지역으로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에는 동조하였다. 위의 책, 189-190면.

180) 위의 책, 190-191면.

181) Thomas M. Lindsay, 앞의 책, 417면.

적으로 모든 것을 감독할 수 없으므로 선제후의 대표 혹은 기구로서 모든 교회의 소송 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최고 법원의 설립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방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합당하게 수정시킨 중세의 교권적인 교회법원을 부활시킬 것을 제안하였다.¹⁸²⁾

루터의 생각에 따라서 이 교회 법(jus episcopale)은 세속의 최고 권위자에게 있었다. 제후들은 이 중세 재판소를 변경시켜서 법률가와 신학자로 구성된 영속적인 의회를 조직해서 제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제후의 이름으로 결혼사건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소송사건을 처리해 주는 루터파 교회재판소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비텐베르크 교회법원이 1542년에 설립되었다. 이 재판소는 옛 중세교회의 종교법원을 모델로 해서 법률가와 신학자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세의 종교법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이 루터파 재판소는 세속의 최고 권위에 의해서 임명받았으며 또한 그의 이름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다.¹⁸³⁾

VII. 결론

1. 종교개혁 전야의 배경을 교회법적 관점으로 고찰했을 때, 당시의 교회법은 교황우위권에 근거해 독일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고 있었고, 불합리한 교회법적 사법구조 또한 많은 불합리의 양산 및 불만의 원인이 되어 있었다. 당시의 실정법으로 교회는 많은 부분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법적 관할권을 행사함으로써 사람들의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저해하며, 재산권을 착취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한 루터의 이해와 자신의 로마 교회법 소송의 경험들을 토대로 종교개혁적 불만들을 강렬하게 토로하며, 로마 가톨릭 교황권을 비판하였다.

2. 「95개조 논제」 및 「95개조 논제 해설」에서는 교회법상의 면죄부와 참회제도가 불합리한 오류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했고,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에서는 영적 권세의 우위성에 의거한 불평등한 법적 면제 및 면책, 경제적 착취를 조장하는 교회법 구조와 제도들, 교회법상의 형벌(파문)의 오용 및 남용과 성직자의 결혼의 자유의 억제, 교황권 중심의 교회법 해석의 자의성 등을 비판했다.

3. 루터를 비롯한 다른 종교개혁가들의 교회법 비판 및 교회법 폐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교회법적 공백이라는 사회적 위기를 초래했고, 이에 대해 법률가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종교개혁 신학에 초대 교회법의 장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였다. 한편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 신학을 도시별로 법제화해 나갔는데, 여기서는 교회법 비판에 있어서 제시되었던 문제점들을 루터주의 개혁법령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법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

182) 위의 책, 417면.

183) 위의 책, 418면.

4. 루터의 교회법 비판과 비판 내용의 법제화가 갖는 근대적인 법적 함의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논의를 맺고자 한다.

(1) 양심과 자유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법구조에 대한 저항

우선 「95개 논제」 및 「95개 논제해설」에 나타난 교회법상의 참회제도 및 면죄부에 대한 비판 즉 교회법이 죽은 자들의 속죄 문제를 규율하고 그것을 다시 살아 있는 자에 대한 경제적 탈취의 수단과 연결 짓는 구조를 비판한 것은 가톨릭 교회법의 양심에 대한 압제 및 재산권 탈취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당시에는 신앙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것은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을 법으로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는데 루터의 비판은 신앙과 양심과 자유를 법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켰고 교회가 더 이상 교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과 자유와 재산을 기만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하였다. 루터는 인간이 종교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성의 자유가 훼손받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이는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이해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법적 의무 및 처벌에 있어서의 평등에 대한 주장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 구조에서의 만인사제적의 관념은 이제 인간들 사이의 세속법에서는 법 앞에서의 평등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즉 영적 권세를 세속 권세의 우위에 놓고 교회법에 근거해서 세속법의 의무와 처벌로부터 불평등하게 면제되는 구조의 교회법은 평등이라는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었고 성직자 우위 중심의 사법적 구조 또한 법질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곧 법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를 의미했다. 루터는 이제 이러한 법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게 하는 교회법적 현실이라는 실정법 구조에 대해 법철학적 도전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평등에 대한 감각은 루터의 모든 사상의 근본적인 것인데 루터는 이를 법 앞의 평등이라는 근대적인 헌법적 가치로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대인 (2009).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 「신앙과 학문」 제14권 제2호, 기독교학문연구회.
- 김문기 (2000). “사면부의 역사와 루터의 95개조 논제에 대한 소고”, 역사신학논총 제2집,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 김영도 (2001). “종교개혁, 그 연속성과 비연속성”, 「신학과 목회」, 영남신학대학교.
- 김주환 (2002). “루터 종교개혁의 문화적인 의미”, 「종교와 문화」,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신치재 (2010). “법에 대한 복음주의 신학적 접근 - 루터의 두 왕국이론에 기초하여 -”, 중앙법학, 제12권 제2호, 중앙법학회.
- 정진석 (2007).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출판사.
- 조병하 (2000). 「마르틴 루터와 개혁 사상의 발전」, 한들출판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8). *CODEX JURIS CANONICI*, 「교회법전」.
- 홍치모, “독일의 종교개혁과 도시공동체” 「韓國教會史學會誌」, 한국교회사학회, 1998
- Althaus, Paul (1989). *The Ethics of Martin Luther*, 「말틴 루터의 윤리」, 이희숙 역, 컨콜디아사.
- Berman, Harold J. (1974).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Abingdon Press.
- _____ (1992). *The Interaction of Law and Religion*, 종교와 제도, 김 철 역, 민영사.
- _____ (2003). *Law and revolution II : The Impact of the Protestant Reformations on the Western Legal Tra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nack, Adolf von (2007). *Das Wesen Des Christentums*, 「기독교의 본질」, 오홍명 역, 한들출판사.
- Helmholz, Richard H. (1992). *Canon Law in Protestant Lands*, Duncker & Humblot.
- Lindberg, Carter (1993). *Beyond Charity : Reformation initiatives for the poor*, Fortress Press.
- _____ (1996). *European Reformations*, Blackwell Publishers.
- Lindsay, Thomas M. (1990).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1, The Reformation in Germany from its Beginning to the Religious Peace of Augsburg*, 「종교개혁사 1」, 이형기, 차종순 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출판국.
- Lohse, Bernhard (1993).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Luther, Martin (2010).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원당회 옮김, 세창미디어.
- _____ (1984). 루터選集 제5권, 지원용 감수·편집, 컨콜디아사.
- _____ (1983). 루터選集 제9권, 지원용 감수·편집, 컨콜디아사.
- _____ (2004). *Martin Luther :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루터저작선」, John Dillenberger(ed), 이형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Moeller, Bernd (1982). *"Reichsstadt und Reformation"*, 「Imperial Cities and the Reformation」, edited and translated by H.C. Erik Midelfort & Mark U. Edwards, Jr, Labyrinth Press.
- Ozment, Steven (1975). *The Reformation in the Cities : the Appeal of Protestantism to sixteenth-century Germany and Switzerland*,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88). *The Age of Reform, 1250-1550 : An Intellectual and Religious*

- History of Late Medieval and Reformation Europe*, 「개혁의 시대 : 중세 말의 지성 종교사와 유럽의 종교개혁」, 손두환, 강정진 역, 칼빈서적.
- _____ (2004). *Protestants : The Birth of a Revolution*, 「프로테스탄티즘 : 혁명의 태동」 박은구 옮김, 해안.
- Schaff, Philip (2004).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 7 : The German Reformation*, 「교회사전집. 7 : 독일 종교개혁」, 박종숙 옮김,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Schrekenbach, Paul & Neubert, Franz (2003). *Martin Luther : Ein Bild seines Lebens und Wirkens : mit 384 Abbildungen, Vorwiegend nach Alten Quell* 「마르틴 루터」 남정우 옮김. 예영커뮤니케이션.
- Schwarz, Reinhard (2007). *Luther, Martin*, 「마틴 루터」 정병식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 Troeltsch, Ernst (1958). *Die Bedeutung des Protestantismus für die Entstehung der modernen Welt*, 「Protestantism and Progress」, translated by W. Montgomery, Beacon Press.
- _____ (2007). *Protestantism and Progress*, 「프로테스탄티즘과 진보」, 김천배 역, 세계 기독교 대사전, 교육출판공사.
- _____ (1960). *Die Soziallehren der Christlichen Kirchen und Gruppen*,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2」, translated by Olive Wyon, Harper & Row Publisher.
- Walter I. Brandt & Helmut T. Lehmann (ed.) (1985), 「Luther's Works : Christian in society II, vol. 45」, Fortress Press.
- Wieacker, Franz (1995). *Privatrechtsgeschichte der Neuzeit*, 「History of Private Law in Europ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Germany」, translated by Tony Weir, Oxford University Press.
- Witte, Jr., John (1997). *From Sacrament to Contract -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_____ (2006). *From Sacrament to Contract - Marriage, Religion, and Law in the Western Tradition*, 「성례에서 계약으로 - 서양 혼인법의 역사와 신학」, 정경화, 류금주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 _____ (2002). *Law and Protestantism : The Legal Teaching of the Lutheran Reformation*, Cambridge Press.